

2015년 5월 고용동향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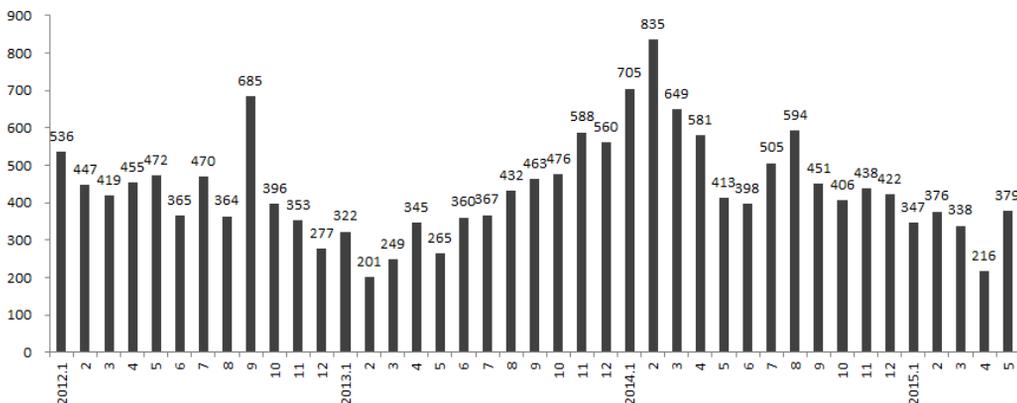
정성미(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복순(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재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1 2015년 5월 고용동향

- ◎ 취업자 수 : 2014년 5월 대비 379천 명 증가
 - 남녀 비슷한 증가폭(남성 183천 명 ↑, 여성 195천 명 ↑)
 - 1~5월 평균 331천 명 증가

[그림 1]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2013. 5	2014. 5	2015			
				2월	3월	4월	5월
15 세 이 상	생산가능 인구 (증가율)	42,047 (1.3)	42,453 (1.0)	42,827 (1.1)	42,874 (1.2)	42,925 (1.2)	42,975 (1.2)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26,195 (1.0)	26,762 (2.2)	26,398 (1.5)	26,577 (1.5)	26,954 (0.9)	27,211 (1.7)
	취업자 (증가율)	25,398 (1.1)	25,811 (1.6)	25,195 (1.5)	25,501 (1.3)	25,900 (0.8)	26,189 (1.5)
	(증가 수)	(265)	(413)	(376)	(338)	(216)	(379)
	(남성)	(153)	(200)	(144)	(166)	(121)	(183)
	(여성)	(112)	(212)	(232)	(172)	(95)	(195)
	참가율	62.3	63.0	61.6	62.0	62.8	63.3
	(남성)	(73.9)	(74.4)	(73.1)	(73.4)	(74.2)	(74.5)
	(여성)	(51.2)	(52.2)	(50.6)	(51.0)	(51.8)	(52.6)
	고용률	60.4	60.8	58.8	59.5	60.3	60.9
	(남성)	(71.6)	(71.8)	(70.0)	(70.5)	(71.4)	(71.8)
	(여성)	(49.7)	(50.2)	(48.2)	(48.9)	(49.8)	(50.6)
	실업자	797	951	1,203	1,076	1,053	1,022
	실업률	3.0	3.6	4.6	4.0	3.9	3.8
(남성)	(3.2)	(3.4)	(4.4)	(4.0)	(3.8)	(3.7)	
(여성)	(2.9)	(3.7)	(4.8)	(4.1)	(4.0)	(3.8)	
비경황 (증가율)	15,853 (1.8)	15,691 (-1.0)	16,429 (0.5)	16,298 (0.7)	15,971 (1.7)	15,764 (0.5)	
15 ~ 64 세	참가율	67.1	68.2	67.8	67.7	68.4	68.8
	(남성)	(78.0)	(78.7)	(78.4)	(78.2)	(79.0)	(79.1)
	(여성)	(56.2)	(57.6)	(57.1)	(57.1)	(57.7)	(58.3)
	고용률	65.0	65.6	64.9	64.9	65.6	66.1
	(남성)	(75.4)	(75.9)	(75.0)	(75.1)	(75.9)	(76.1)
	(여성)	(54.5)	(55.2)	(54.6)	(54.7)	(55.2)	(5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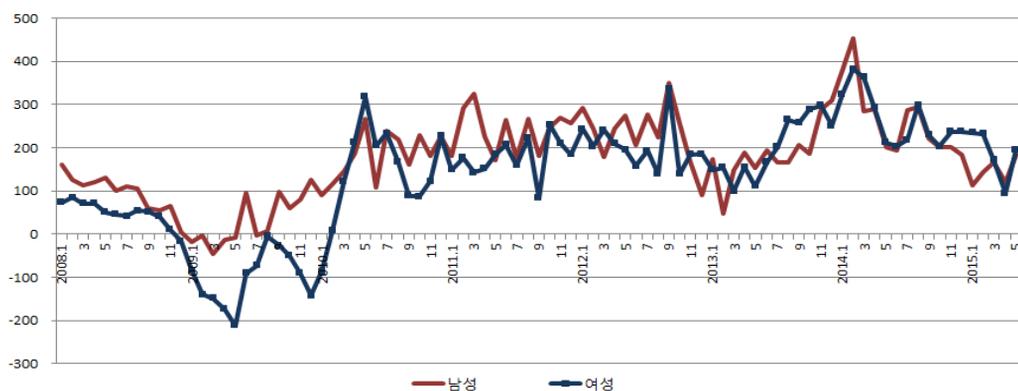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고용률 : 2014년 5월 대비 0.1%p 증가
 - 15~64세 고용률은 0.5%p 상승해 66.1%를 기록
 - 취업자 증가폭 개선으로 고용률도 (+)증가로 돌아섬

- ◎ 고용률 증감을 전년동월대비로 볼 때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하반기 이후 가파르게 둔화하는 흐름에서 5월 증가로 반전

[그림 2] 성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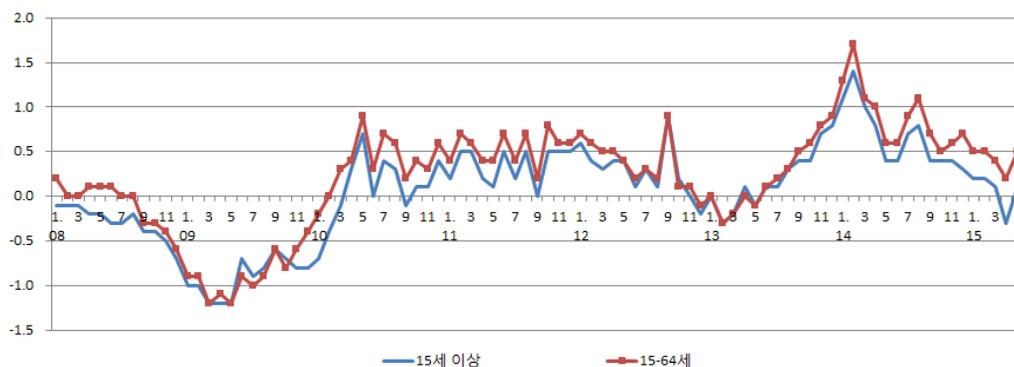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3]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p)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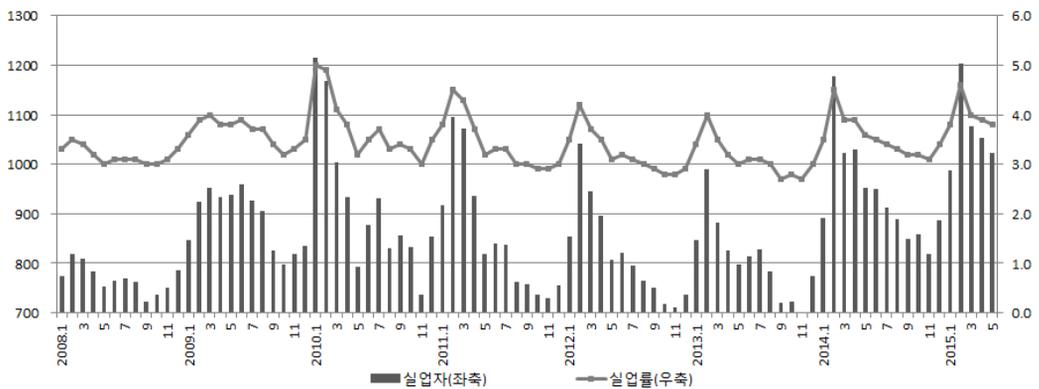
- ◎ 실업자 수 및 실업률: 2014년 5월 대비 7만 1천 명 증가, 실업률은 3.8%, 0.2%p 증가
- ◎ 비경제활동인구: 2014년 5월 대비 77만 3천 명 증가(증가율 0.5%p)

- 2015년 이후 감소 추세를 뒤집고 (+)증가를 지속하며 증가폭이 빠르게 증가했지만, 5월 증가폭이 크게 둔화

- ◎ 최근 취업자 감소에는 민간부문 취업자가 크게 둔화한 영향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공공부문 취업자 감소세의 영향이 반영(그림 6)

[그림 4] 실업자,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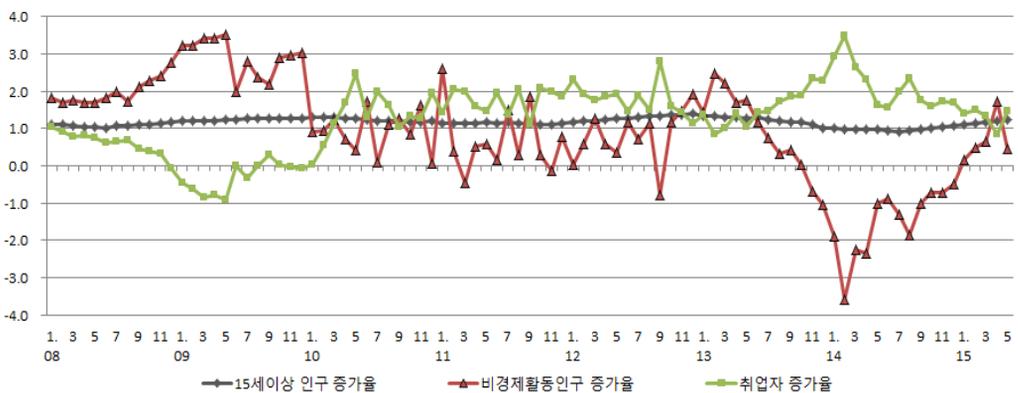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5]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 취업자 증가율,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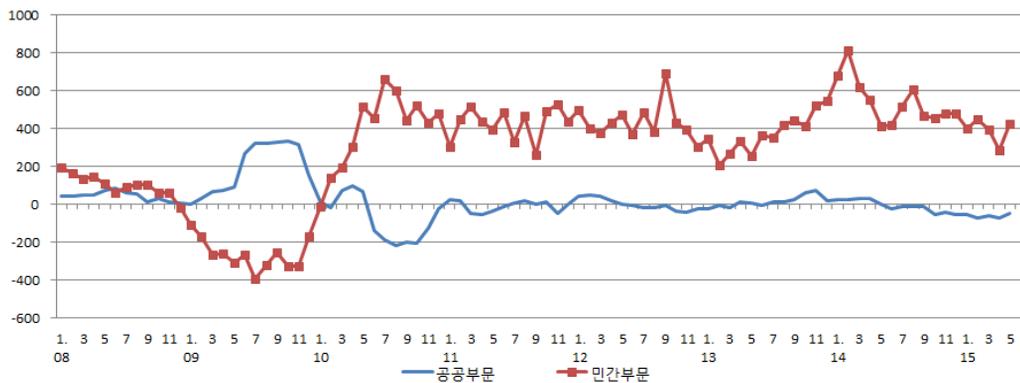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6] 부문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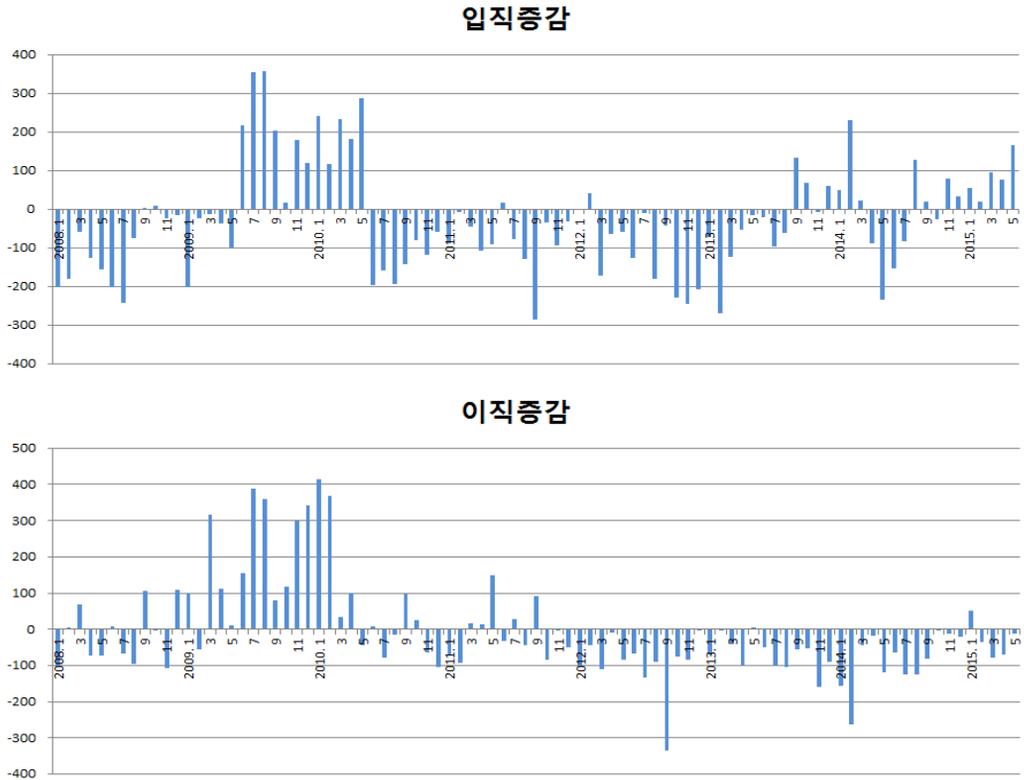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입직과 이직 흐름을 분석해 보면, 입직의 경우 2014년 하반기 이후 상승 추이를 유지함. 특히 4월은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음에도 불구하고 77천 명 증가했으며, 5월은 증가 추세를 이어가 166천 명 증가
 - 2015년 들어 입직자 증가 규모 확대(11월 80천 명 ↑ → 12월 35천 명 ↑ → 2015년 1월 54천 명 ↑ → 2월 20천 명 ↑ → 3월 96천 명 ↑ → 4월 77천 명 ↑ → 5월 166천 명 ↑)
 - 특히 일용직에서 크게 증가(131천 명 ↑)했으며 상용직도 56천 명 증가
 - 일용직 중심의 신규채용의 증가로 신규채용자의 42.3%를 차지함
 - 이직자 수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그 변화가 점점 줄어들어 변동폭이 크지 않음(2월 36천 명 ↓ → 3월 79천 명 ↓ → 4월 69천 명 ↓ → 5월 13천 명 ↓)
 - 이직자 수 변동이 거의 없는 가운데 직장의 휴폐업(11천 명 ↑)은 증가하였고, 퇴직 및 정리해고(12천 명 ↓)는 감소. 이직사유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적 사유로 인한 이직은 변화가 없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취업월과 이직월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를 이용해 계산, 입직자 수는 3개월 미만 근속한 사람의 수, 이직자 수는 3개월 미만 이직자 수임

[그림 7] 입·이직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주: 입직은 임금근로자의 근속기간 3개월 미만자 수, 이직은 이직한 지 3개월 미만인 미취업자 수이며, 전년동월대비 증감수를 그린 것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 각 연도 5월 근속기간별 임금근로자 수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

(단위: 천 명)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 증감	2012 증감	2013 증감	2014 증감	2015 증감
3개월 미만	3,377	3,320	3,304	3,071	3,237	-91	-57	-15	-234	166
1년 미만	3,031	3,091	2,859	2,928	3,039	-111	60	-232	69	111
1~3년 미만	3,736	3,887	3,927	4,120	4,078	149	152	40	193	-42
3년 이상	7,483	7,637	8,297	8,706	8,932	425	154	660	409	226
전 체	17,626	17,935	18,388	18,825	19,285	372	309	453	437	46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3〉 각 연도 5월 3개월 미만 근속자의 종사상 지위(증감 및 비중)

(단위: 천 명, %)

	증감					비중				
	2011	2012	2013	2014	2015	2011	2012	2013	2014	2015
상 용	21	25	20	-55	56	18.9	20.0	20.7	20.5	21.2
임 시	-68	-6	-105	-42	-20	40.1	40.6	37.7	39.2	36.5
일 용	-44	-76	69	-138	131	40.9	39.3	41.6	40.3	42.3
전 체	-91	-57	-15	-234	166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4〉 각 연도 5월 3개월 미만 이직자의 이직사유별 추이 및 전년동기대비 증감

(단위: 천 명)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4 증감	2015 증감
개인, 가족관련 이유	488	544	518	500	386	386	-115	0
육아	25	37	32	34	29	28	-5	-1
가사	24	34	23	29	27	27	-3	0
심신장애	10	9	10	13	11	11	-2	0
정년퇴직, 연로	13	25	18	26	27	18	1	-9
작업여건(시간, 보수 등) 불만족	162	206	209	186	206	203	21	-3
직장의 휴업, 폐업	28	33	33	33	24	35	-9	11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37	36	38	42	46	34	4	-12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112	125	119	141	133	138	-7	5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175	165	147	143	118	110	-25	-9
기타	25	35	19	23	43	48	20	5
전 체	1,099	1,248	1,164	1,169	1,049	1,036	-120	-1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2015년 5월 고용동향의 부문별 특징

1. 고령층의 고용 증가 주도 및 20대 초반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

- ◎ 2015년 5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회복된 주된 이유는 20대 초반의 증가와 더불어 5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가 증가한 영향

- 5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자 수는 314천 명(147천 명+167천 명) 증가로 여전히 전체 고용변동을 주도함. 그렇지만 전년동월의 증가폭(409천 명) 수준에 미치지 못해 전체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편, 5월에 20~24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130천 명 증가로 인구 증가폭을 크게 뛰어넘는 반면, 25~29세는 31천 명 감소

〈표 5〉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 증감(전년 및 전년동월대비)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감						취업자 수	생산가능 인구 증감		
	2013. 5	2014. 5	2015					2015. 5	2013. 5	2014. 5
			2월	3월	4월	5월				
전 체	265	413	376	338	216	379	26,189	529	405	522
15~29세	-85	23	30	39	85	114	3,963	38	-43	-8
15~19세	-31	34	-14	-5	7	15	248	-29	-74	-70
20대	-53	-11	44	45	78	99	3,716	68	31	61
20~24세	29	27	51	83	100	130	1,464	155	86	53
25~29세	-82	-38	-7	-38	-22	-31	2,252	-87	-56	9
30대	11	-42	18	-3	-68	-44	5,673	-60	-117	-85
30~34세	85	-2	4	-20	-44	-27	2,879	65	-41	-118
35~39세	-74	-40	15	17	-24	-17	2,794	-125	-76	33
40대	-28	22	-48	-67	-26	-7	6,687	35	-20	-19
50대	230	227	183	158	112	147	6,029	266	212	192
60세 이상	136	182	193	210	114	167	3,837	250	373	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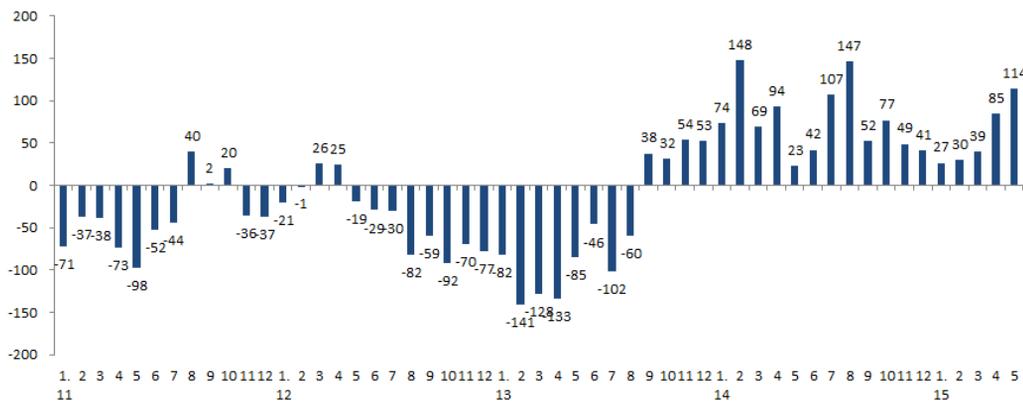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2013년 하반기 이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증가 지속

- 5월 청년층 취업자 증가는 20~24세의 증가 영향(인구 증가의 영향도 반영)으로, 남성 66천 명↑, 여성 65천 명↑
- 반면, 25~29세 취업자 감소는 여성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데, 5월은 여성 42천 명 감소한 반면, 남성은 11천 명 증가

[그림 8] 전년동월대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성별 고용률 여성 0.4%p 증가, 남성은 동일

- 남녀 모두 취업자가 20만 명에 가깝게 증가했지만, 여성은 고용률이 증가한 반면, 남성은 전년동월과 동일함
- 남성은 20대 초반의 고용률이 3.9%p 증가하였고, 20대 후반과 30대는 소폭의 증가를 하였지만, 40대 이상의 고용률은 감소. 특히 40대 고용률이 6개월 연속 감소 (2014년 12월 0.3%p ↓ → 2015년 1월 0.5%p ↓ → 2월 1.1%p ↓ → 3월 0.8%p ↓ → 4월 0.4%p ↓ → 5월 0.4%p ↓)
- 반면, 여성은 20대 초반이 3.2%p, 30대 초반이 2.5%p 증가해 증가폭이 크게 증가한 반면, 25~29세(2.5%p ↓)와 35~39세(1.8%p ↓)는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감소

〈표 6〉 연령계층별 고용률 추이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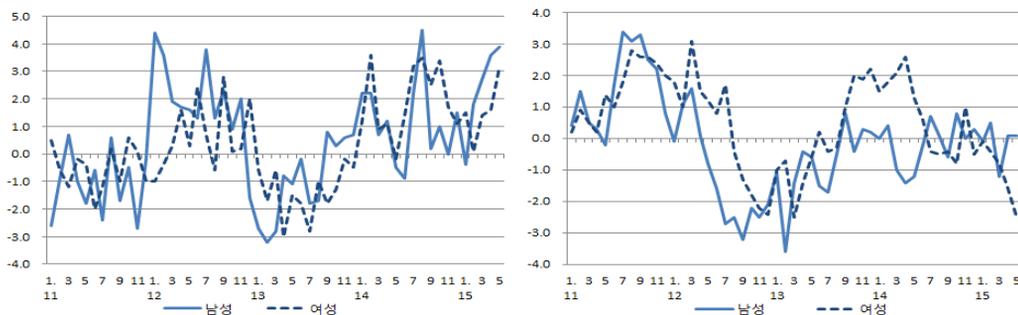
		2013. 5	2014. 5	2015				증감 (2014. 5→ 2015. 5)
				2월	3월	4월	5월	
전 체	전 체	60.4	60.8	58.8	59.5	60.3	60.9	0.1
	15~29세	40.1	40.5	41.1	40.0	41.1	41.7	1.2
	15~19세	6.1	7.3	8.5	7.0	7.3	7.9	0.6
	20대	57.8	57.3	57.2	56.3	57.7	58.3	1.0
	20~24세	44.4	44.0	45.1	44.0	46.1	47.5	3.5
	25~29세	69.6	69.7	68.5	67.8	68.7	68.5	-1.2
	30대	73.3	73.9	74.0	73.8	73.6	74.1	0.2
	30~34세	73.0	73.7	74.6	74.4	74.8	75.3	1.6
	35~39세	73.6	74.0	73.4	73.2	72.5	72.9	-1.1
	40대	78.7	79.1	78.0	78.2	79.2	79.2	0.1
	50대	74.0	74.9	73.3	73.8	74.5	74.9	0.0
	60세 이상	40.9	41.3	34.4	38.1	39.7	41.1	-0.2
	남 성	전 체	71.6	71.8	70.0	70.5	71.4	71.8
15~29세		38.4	38.3	39.6	38.0	39.7	40.1	1.8
15~19세		5.7	6.4	7.1	6.4	7.0	7.1	0.7
20대		56.4	55.1	56.3	54.1	56.4	56.8	1.7
20~24세		38.4	37.9	41.2	37.9	41.0	41.8	3.9
25~29세		70.5	69.3	68.8	67.6	69.2	69.4	0.1
30대		90.6	90.9	90.8	90.6	90.5	91.0	0.1
30~34세		89.0	89.5	89.4	89.1	89.7	90.1	0.6
35~39세		92.4	92.3	92.3	92.0	91.3	91.9	-0.4
40대		92.0	93.0	91.3	91.8	92.6	92.6	-0.4
50대		87.7	88.3	86.1	87.0	87.6	87.4	-0.9
60세 이상		53.3	53.6	46.8	50.5	51.8	53.1	-0.5
여 성		전 체	49.7	50.2	48.2	48.9	49.8	50.6
	15~29세	41.7	42.7	42.5	42.1	42.5	43.4	0.7
	15~19세	6.5	8.2	10.0	7.7	7.6	8.8	0.6
	20대	59.1	59.5	58.1	58.5	59.1	59.8	0.3
	20~24세	49.4	49.2	48.5	49.3	50.5	52.4	3.2
	25~29세	68.8	70.1	68.1	68.1	68.1	67.6	-2.5
	30대	55.4	56.3	56.6	56.4	56.2	56.6	0.3
	30~34세	56.5	57.3	59.1	58.9	59.2	59.8	2.5
	35~39세	54.3	55.2	54.0	54.0	53.2	53.4	-1.8
	40대	65.0	65.0	64.4	64.4	65.6	65.6	0.6
	50대	60.3	61.4	60.4	60.6	61.4	62.4	1.0
	60세 이상	31.4	31.7	24.7	28.4	30.2	31.7	0.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2013년 하반기 이후 고용률 하락 흐름에서 벗어난 20대는 최근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회복세를 보이는데 주로 20대 초반의 영향임
 - [그림 9]를 보면, 2013년 하반기 이후의 청년층 고용률 증가를 이끈 25~29세 여성은 2014년 상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동시에 남성 고용률도 크게 둔화
 - 20대 후반은 남성과 여성의 특성이 비슷해지는 가운데 구조적 특징이라기보다는 경기의 영향을 받은 영향이 더 작용한 것으로 해석
 - 반면, 20~24세 고용률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음

[그림 9]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추이 : 20~24세 좌측, 25~29세 우측

(단위 : %p)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최근 20~24세 고용률 상승은 주로 재학생(아르바이트) 고용률의 증가 영향인 가운데 5월에는 졸업생 고용률도 동반 상승한 영향이 작용
 - 재학생 고용률은 전년동월대비 2.3%p 증가하였고, 졸업생 고용률은 2014년 12월 이후 감소 추세를 멈추고 1.2%p 증가로 반전

〈표 7〉 각 연도 5월 20~24세 재학 여부별 고용률과 근속기간별 임금근로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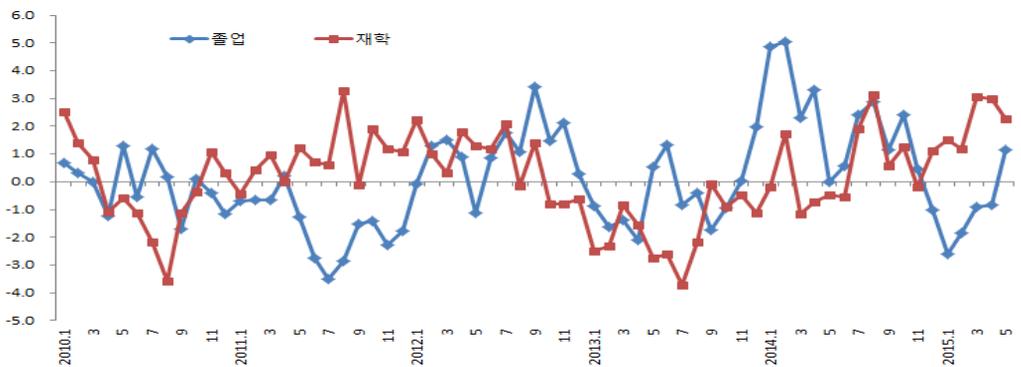
	졸업생 고용률	재학생 고용률	근속기간별			
			3개월 미만	3개월~1년 미만	1~3년 미만	3년 이상
2010. 5	68.3	26.8	410	391	269	55
2011. 5	67.0	28.1	406	371	284	62
2012. 5	65.9	29.3	430	424	301	50
2013. 5	66.5	26.6	450	405	322	51
2014. 5	66.4	26.1	380	438	390	54
2015. 5	67.6	28.4	454	444	414	7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20대 초반 재학생 취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여가관련 서비스업이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졸업생 취업은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여가 및 기타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해 두 집단을 흡수하는 산업이 상이함
- 감소 추세를 지속하던 졸업생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5월 15천 명 증가 영향으로 고용률 증가

[그림 10] 20~24세 졸업생과 재학생의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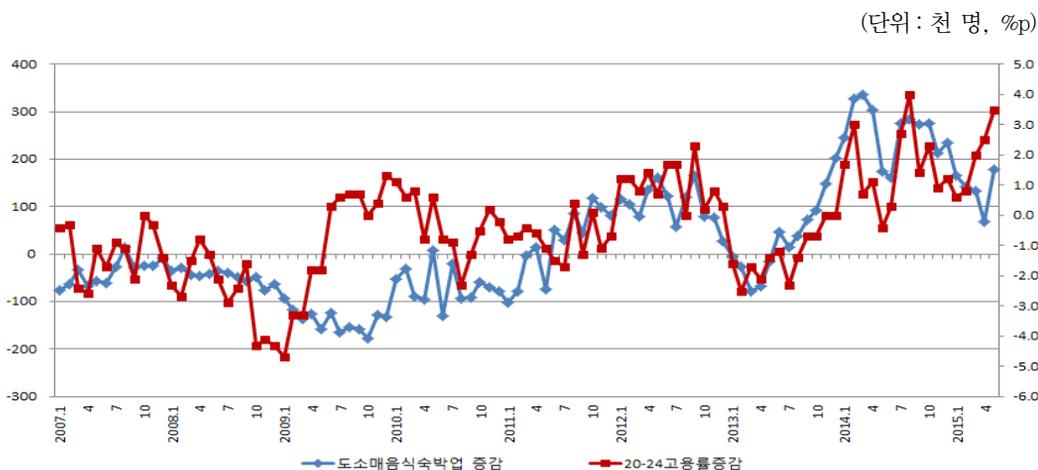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며 20~24세의 고용률 변화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변화와 깊은 연관을 보임

- 2011년 이후 20~24세 취업자가 아르바이트 등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중심으로 빠르게 흡수되면서 산업의 흐름과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음
- 즉,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경기변화에 20대 초반 고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 이 두 산업에 속한 20~24세는 주로 서비스·판매업 등 저임금 직업군에 포진

[그림 11] 전년동월대비 20~24세 고용률 증감 및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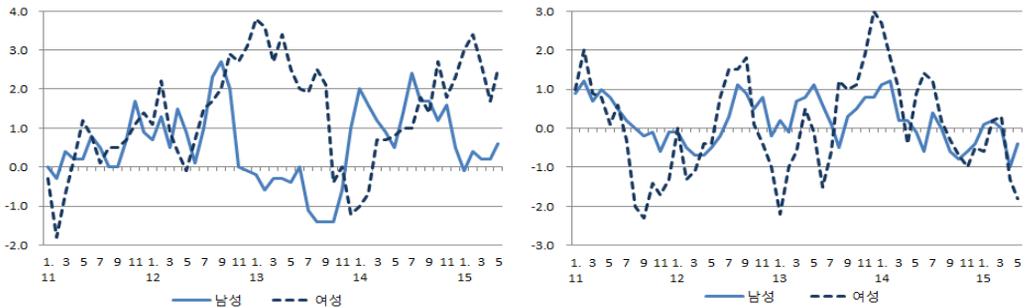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30대는 30~34세 여성을 제외하고 부진을 이어감

- [그림 12] 고용률 증감 추이(좌측)를 보면, 여성은 30대 초반에서 2014년 초를 기점으로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감. 최근 소폭 둔화되기는 했지만, 지속적으로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음
- 반면, 30대 후반은 남녀 모두에서 2014년 하반기 이후 감소를 지속
 - ※ 25~29세 여성의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해 현재 남성의 고용률과 큰 차이가 없어진 흐름과 마찬가지로 30~34세의 여성 고용률도 만혼이나 자녀가 없는 기혼여성 증가의 영향으로 취업이 활발해진 노동공급효과로 해석 가능
 - ※ 30~34세 여성의 취업자 가운데 무배우자(미혼)의 비중은 2005년 28.7%에서 2014년 41.7%까지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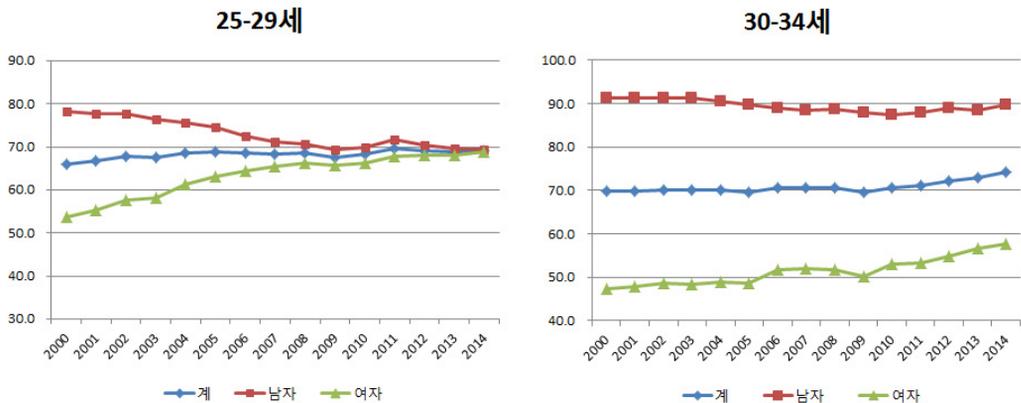
[그림 12]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추이 : 30~34세 좌측, 35~39세 우측

(단위 : %p)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3] 연령별, 성별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고용률 장기 추이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최근 고용률 부진이 지속되는 20대 후반 여성과 30대 후반 여성에서 여성의 연령집단별 인구에서 산업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최근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의 취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20대 초반은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빠르게 증가
 - 여성 20대 초반을 흡수하는 산업 영역과 여성 30대 후반을 흡수하는 산업 영역이 정확하게 매치되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지만, 각 연령대를 흡수하는 산업의 변화는 포착

- 최근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비중은 25세 이상 연령에서 증가
- 만혼과 출산기피 현상으로 초혼 연령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추세 속에서 보육과 육아의 이유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연령이 30대 중후반으로 밀리는 현상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자녀 수나 연령은 여성 노동시장 분석에 핵심 변수로 30대, 40대 여성 노동시장을 분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본 조사자료의 한계로 분석에 제한

〈표 8〉 각 연도 5월 여성의 산업별·연령집단별 고용률

(단위 : %)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기타	고용률
20~24세	2009	4.3	7.9	5.7	2.4	9.7	5.8	14.7	50.4
	2010	4.6	8.7	5.9	1.7	10.2	6.8	13.0	51.0
	2011	4.3	7.2	6.2	1.6	8.3	10.0	13.0	50.6
	2012	4.2	7.4	6.9	1.2	8.1	10.1	12.9	50.9
	2013	4.9	7.4	7.0	1.1	6.7	10.4	11.9	49.4
	2014	3.6	7.8	7.9	1.4	5.8	9.3	13.5	49.2
	2015	5.6	7.4	7.9	1.1	6.4	9.8	14.3	52.4
25~29세	2009	7.1	9.4	3.3	3.7	12.9	9.5	19.8	65.6
	2010	6.9	9.2	3.0	4.5	12.4	10.8	20.1	66.8
	2011	7.4	8.9	3.3	4.7	11.4	11.7	20.8	68.2
	2012	7.3	10.0	3.2	4.6	11.5	11.5	21.3	69.4
	2013	6.3	9.6	4.4	3.9	9.7	12.6	22.3	68.8
	2014	7.2	8.7	3.8	3.5	11.0	14.1	21.6	70.1
	2015	6.3	9.7	3.6	3.5	9.7	12.8	22.0	67.6
30~34세	2009	4.6	7.5	3.5	2.9	10.6	6.1	14.1	49.2
	2010	5.2	7.8	2.6	3.1	10.9	6.6	16.7	52.9
	2011	6.7	7.3	2.7	4.0	9.8	6.7	16.9	54.1
	2012	6.5	7.2	2.8	3.5	9.7	7.7	16.7	54.0
	2013	7.2	7.6	2.8	3.7	9.6	8.6	17.0	56.5
	2014	7.8	8.1	2.5	3.4	10.4	8.3	16.9	57.3
	2015	9.1	8.2	3.2	3.4	9.3	8.8	17.9	59.8
35~39세	2009	7.0	10.2	5.5	3.2	9.8	4.6	15.0	55.4
	2010	7.2	10.9	5.0	2.8	10.2	5.1	13.6	54.7
	2011	6.8	9.0	4.2	3.3	10.3	6.3	14.9	54.8
	2012	6.1	8.9	4.3	3.6	11.0	7.0	13.5	54.4
	2013	5.9	9.0	4.3	3.9	9.7	7.4	14.0	54.3
	2014	6.0	9.1	4.1	3.9	9.4	7.8	14.8	55.2
	2015	6.6	8.6	4.5	3.0	9.0	7.9	13.8	53.4

주 : 산업의 비중을 모두 더하면 고용률 총계와 같음.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 상용직·일용직 중심의 취업자 수 증가

- ◎ 최근 취업자 수 증가는 상용직 중심의 임금근로자 증가가 주요 요인이지만 최근 3개월은 일용직의 증가가 영향을 미침
 - 임금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351천 명 증가와 일용직 136천 명 증가의 영향으로 460천 명 증가. 반면, 임시직은 27천 명 감소
 -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80천 명 ↑)는 증가하였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76천 명 ↓)와 무급가족종사자(85천 명 ↓) 감소에 따라 82천 명 감소해 감소폭이 확대

〈표 9〉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

(단위: 천 명)

	2013. 5	2014. 5	2015			
			2월	3월	4월	5월
전 체	265	413	376	338	216	379
임금	453	437	465	402	347	460
상용직	661	441	383	331	300	351
임시직	-190	121	63	43	-31	-27
일용직	-19	-125	20	28	78	136
비임금	-188	-24	-89	-64	-131	-8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78	17	56	87	78	8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9	-48	-114	-107	-135	-76
무급가족종사자	-71	7	-30	-45	-74	-8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전년동월대비로 보면, 최근 임금근로자는 일용직의 급격한 증가 영향으로 증가
 - 상용직은 2013년 3월부터 60만 명대 증가로 증가폭이 확대된 기저효과 영향으로 2014년 이후 증가폭이 가파르게 둔화되었지만, 8월 이후 증가 규모가 30만 대 초반의 저점을 기록한 후 2015년 1월까지 증가 규모가 40만 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한 이후 등락을 반복하며 일정 수준을 유지
 - 반면, 임시근로자는 2014년 2월 (+)로 전환된 후 등락을 반복하며 증가 추세를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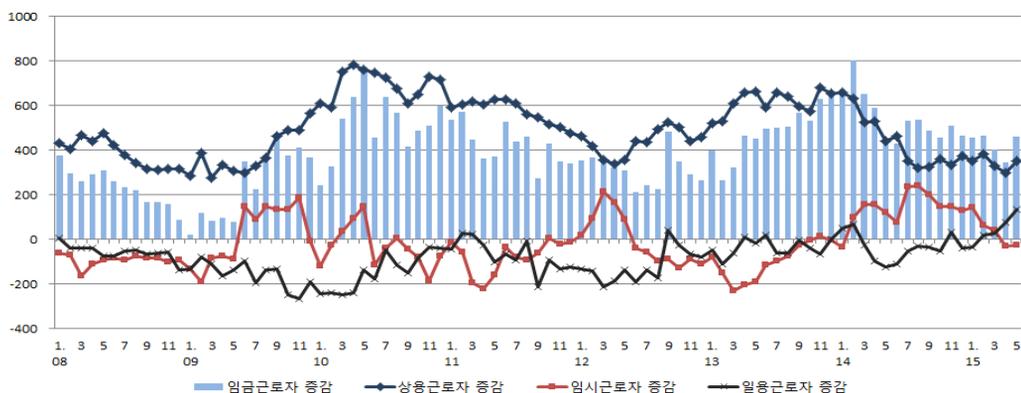
어졌지만, 8월 242천 명 ↑으로 고점을 기록한 후 가파르게 증가 추세가 둔화되다
4월 31천 명 감소로 반전되었고, 5월에도 27천 명 감소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중심으로 증가했던 임시직이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 규모
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업
의 임시직 감소가 두드러짐

- 반면, 2014년 내내 감소국면에 있던 일용직 근로자는 2월 20천 명 ↑으로 (+)전환
된 후 3월 28천 명 ↑, 4월 78천 명 ↑, 5월 136천 명 ↑ 증가로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음

[그림 14]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연령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증가는 60세 이상(129천 명 ↑)과 50대(114천 명 ↑)가 주도한 가운데 15~24세 상용직이 크게 증가(52천 명 ↑)

- 50대의 상용직 증가 추세가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60세 이상의 증가폭이 가파르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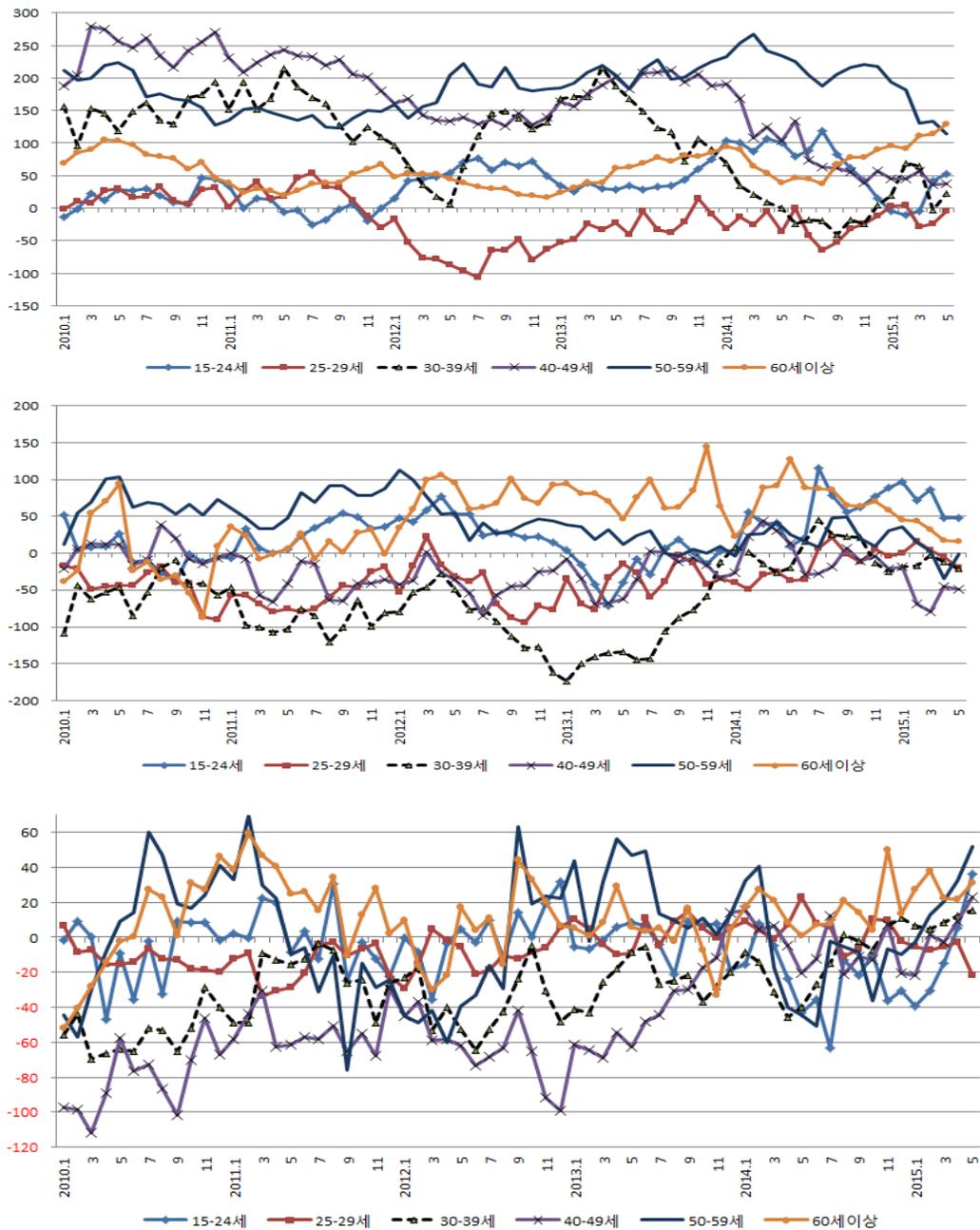
- 최근 60세 이상 상용직이 크게 급감한 이유는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운수업, 부동산업의 증가가 주된 산업이기 때문

※ 60세 이상 제조업 상용직은 취업자 규모가 그리 크지 않지만 2015년 1월 3천 명 ↑, 2월 6천 명 ↑ 증가로 소폭 증가하다가 3월 22천 명 ↑, 4월 29천 명 ↑, 5월 21천 명 ↑ 증가로 갑자기 증가폭이 늘어남

※ 최근 60세 이상 상용직의 증가 추세를 이끈 산업은 사업서비스업으로 2014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규모가 늘어나 5월 38천 명 증가하였고, 부동산 업도 4월 10천 명 ↑, 5월 13천 명 ↑으로 두 달 연속 만 명 이상 증가

- ◎ 전년동월대비 임시직 감소는 핵심연령대(25~59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노동시장 진입 연령인 15~24세(48천 명 ↑)와 은퇴 연령인 60세 이상(16천 명 ↑)에서는 증가 - 그렇지만, 15~24세 연령층은 50천 명대에서 지속적 증가를 이어가는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의 임시직 증가폭은 둔화 추세에 있음
- ◎ 일용직은 25~29세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소폭 증가

[그림 15] 상용근로자(위)와 임시근로자(중간), 일용근로자(아래) 연령별 전년동월대비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10〉 종사상 지위별, 연령별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감

(단위 : 천 명)

		2013. 5	2014. 5	2015			
				2월	3월	4월	5월
15~24세	상용직	29	100	-10	-5	42	52
	임시직	-40	10	72	87	47	48
	일용직	9	-43	-30	-15	6	3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0	0	4	3	3	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	-5	-11	-1	-1	0
	무급가족종사자	3	-1	12	8	10	6
25~29세	상용직	-23	-37	5	-29	-24	-4
	임시직	-14	-36	17	4	-5	-20
	일용직	-9	23	-7	-6	-3	-2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	-5	-1	3	9	1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1	7	-19	-8	-1	7
	무급가족종사자	-11	11	-2	-2	1	-3
30~39세	상용직	188	1	69	65	-3	23
	임시직	-134	-20	-17	-3	-12	-21
	일용직	-8	-40	5	9	12	1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3	21	-29	-37	-35	-3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	-12	-1	-15	-5	-3
	무급가족종사자	-9	9	-10	-22	-25	-29
40~49세	상용직	201	104	46	58	36	37
	임시직	-62	14	-69	-80	-45	-49
	일용직	-63	-20	1	-3	9	23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53	-5	49	29	30	1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3	-48	-40	-47	-44	-15
	무급가족종사자	-18	-23	-34	-25	-12	-15
50~59세	상용직	204	234	182	131	134	114
	임시직	12	26	15	3	-34	-1
	일용직	47	-45	13	21	33	5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	7	7	49	54	6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9	-9	-26	-22	-42	-43
	무급가족종사자	-20	15	-8	-24	-33	-35
60세 이상	상용직	62	39	91	111	114	129
	임시직	47	128	44	32	18	16
	일용직	6	1	38	22	22	3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3	-1	26	39	17	2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1	18	-19	-14	-43	-21
	무급가족종사자	-16	-3	12	20	-14	-1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전년동월대비 업종별 상용직 증감을 보면, 제조업(172천 명 ↑)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67천 명 ↑), 출판 및 방송업(53천 명 ↑)에서 증가
 - 상용직 중 공공행정서비스(32천 명 ↓), 건설업(28천 명 ↓), 운수업(22천 명 ↓)의 감소가 두드러짐
 - 임시직은 숙박 및 음식점업(70천 명 ↑), 여가관련서비스업(32천 명 ↑), 건설업(24천 명 ↑) 중심으로 증가하였고, 이 세 산업은 임시직 증가가 크게 둔화하는 가운데 꾸준히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추세적 경향)
 - 반면, 임시직 가운데 기타개인서비스업(37천 명 ↓), 제조업(36천 명 ↓), 금융 및 보험업(33천 명 ↓), 도소매업(30천 명 ↓)에서 크게 감소
 - ※ 증가 규모가 상당했던 도소매업은 2014년 7월 76천 명 ↑ 증가 이후 8월 95천 명 ↑ → 9월 86천 명 ↑ → 10월 67천 명 ↑ → 11월 59천 명 ↑ → 12월 42천 명 ↑ → 1월 54천 명 ↑ → 2월 3천 명 ↑ → 3월 0천 명 ↑으로 증가폭이 꾸준히 둔화하다 4월 41천 명 ↓ 감소로 돌아섰고, 5월도 30천 명이 감소
 - ※ 기타개인서비스업은 증가 추세를 지속하다 3월 23천 명 ↓, 4월 53천 명 ↓, 5월 37천 명 ↓으로 세 달 연속 감소하였고,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금융 및 보험업도 8개월 연속 감소

〈표 11〉 2015년 5월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업종별 증감

(단위: 천 명, %)

	전년동월 대비 상용직 증감	상용직 수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	전년동월 대비 임시직 증감	전년동월 대비 일용직 증감
제조업	172	3,294	82.9	-36	1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0	81	93.5	-2	1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5	66	78.7	7	0
건설업	-28	565	39.6	24	32
도매 및 소매업	36	1,216	54.2	-30	3
운수업	-22	575	74.9	19	5
숙박 및 음식점업	23	277	20.1	70	51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3	636	90.2	-4	3
금융 및 보험업	-6	509	66.5	-33	-3
부동산 및 임대업	6	205	56.3	-1	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	784	88.9	21	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40	782	65.5	-10	29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2	718	74.8	-19	3
교육 서비스업	18	970	67.3	-23	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7	1,279	75.8	14	-4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	116	41.9	32	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8	388	49.7	-37	-8
기타	-4	57	20.7	-18	-10
전 체	351	12,517	64.9	-27	13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한편 3개월 연속 증가한 일용직은 건설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중심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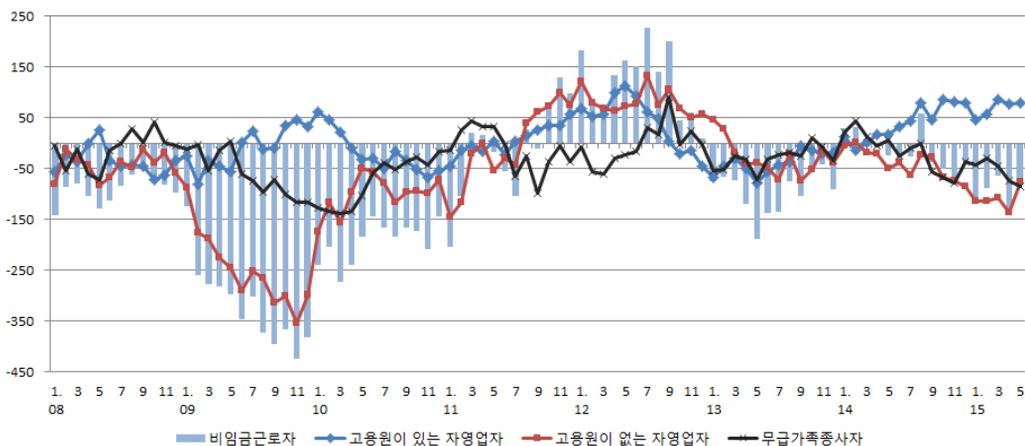
3. 비임금근로자 추이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계속 증가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3년 상반기 이후 감소 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400만 명 수준에서 등락하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50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위기 이후 큰 폭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후 다소 회복하는 듯하였으나 2013년 하반기 이후 감소세를 보임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2013년 하락세를 벗어나 2014년 이후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장기적으로 볼 때 1999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이며 강한 상승 추세를 보였으나, 외환위기와 함께 크게 감소하였다가, 이후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는데, 2005년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무급가족종사자 수는 단기적인 일부 등락을 제외하면 지속적이며 강한 감소 추세

[그림 16] 최근 전년동월대비 자영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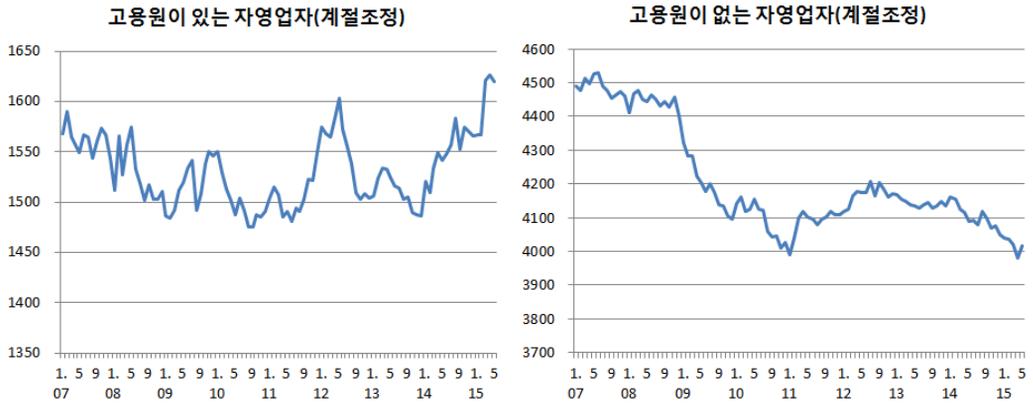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OSIS.

- ◎ 계절조정 수치로 최근 추이를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증감폭이 크지 않으나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소폭의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당분간 감소 추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음

[그림 17] 고용원 여부별 자영업자 수 추이(계절조정)

(단위 : 천 명)



자료 : 통계청, KOSIS.

- ◎ 2015년 5월의 전년동기대비 자영업자의 업종별 증감을 보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24천 명 ↑), 건설업(12천 명 ↑)에서 주로 증가 -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농림어업(76천 명 ↓)에서 감소가 주된 영향을 미쳤고, 이는 추세적 경향임

〈표 12〉 2015년 5월 자영업자의 업종별 증감

(단위: 천 명)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영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감	자영업자 수
농업, 임업 및 어업	10	63	-76	872
제조업	-2	209	-8	187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	3	1	4
건설업	12	175	-2	235
도소매업	9	359	3	869
운수업	6	38	3	593
음식·숙박업	24	325	-7	260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	24	-6	39
금융·보험업	2	11	-6	20
부동산업 및 임대업	6	34	22	11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8	67	-3	7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	33	7	35
교육서비스업	7	83	-3	26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	91	3	8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	34	4	11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5	79	-8	365
기타	1	1	3	18
전 체	80	1,625	-76	4,07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4.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 ◎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던 비경제활동인구가 2015년 들어 연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5월 증가폭이 크게 둔화
 -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의 주된 이유인 '쉬었음'의 증가폭이 5월 138천 명 증가로 소폭 둔화
 - 그러나 정규 교육기관 통학(272천 명 ↓)의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 규모는 크게 감소했고, 추세적 경향을 이어감

〈표 13〉 비경활인구 활동상태별 증감

(단위: 천 명)

	2013. 5	2014. 5	2015				2015.4 비경활 인구수
			2월	3월	4월	5월	
육아	-8	-55	24	28	71	43	1,438
가사	66	-77	-87	-56	-2	-49	5,638
정규 교육기관 통학	144	-29	-209	-230	-238	-272	3,765
입시학원 통학	-33	9	20	18	5	1	71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8	9	47	60	36	41	232
취업준비	13	-5	-9	-42	-13	-29	377
진학준비	-13	-15	-6	-5	19	3	95
연로	21	113	80	65	107	82	1,997
심신장애	15	2	34	39	24	29	449
군입대 대기	-3	19	-3	13	10	12	94
쉬었음	74	-123	143	181	214	138	1,445
기타	-10	-1	50	37	40	73	162
비경활 계	273	-153	83	106	272	73	15,763
취업준비*	20	4	37	18	24	12	608
통학**	118	-11	-142	-153	-197	-230	4,068

주: *취업준비는 취업준비와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의 합.

**통학은 정규 교육기관 통학, 입시학원 통학,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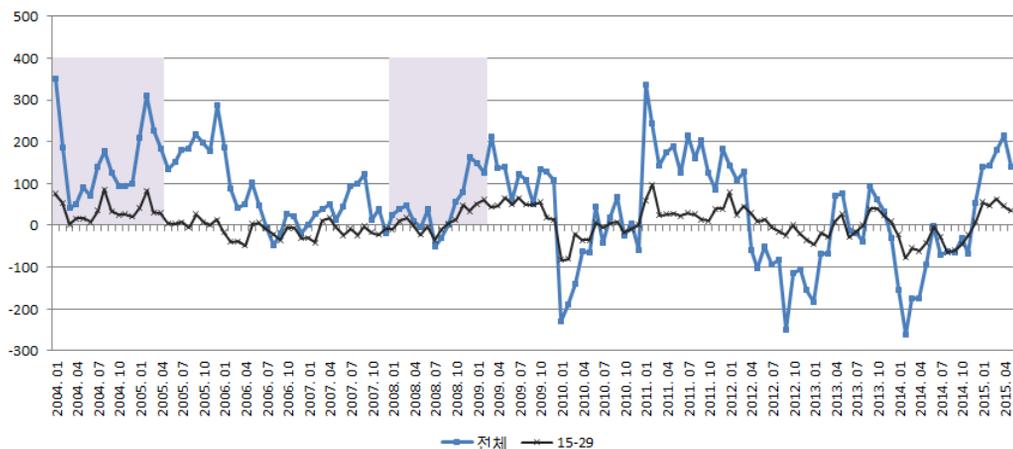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쉬었음은 2015년 들어 5개월 연속 증가

- 2014년 2월 263천 명 감소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폭이 추세적으로 줄어들며 2014년 12월 53천 명 ↑, 2015년 1월 139천 명 ↑, 2월 143천 명 ↑, 3월 181천 명 ↑, 4월 214천 명 ↑ 증가로 증가폭이 확대되다 5월 138천 명 ↑ 증가로 증가폭은 둔화
- 쉬었음의 전체 추세 변화는 남성을 중심으로 이어지는데, 5월 쉬었음의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데는 남성의 증가폭 둔화가 주된 영향(남성 84천 명 ↑, 여성 55천 명 ↑)
- 연령별로 보면, 주로 60세 이상(78천 명 ↑)의 영향이며 20대(31천 명 ↑), 50대(22천 명 ↑) 증가도 기인

[그림 18] 쉬었음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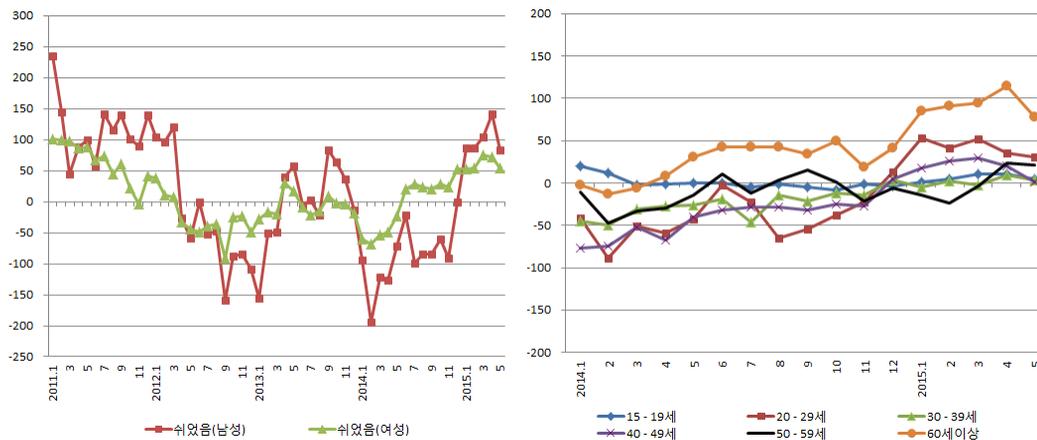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주: 음영은 경기순환 기준순환일 기준 수축기.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19] 쉬었음 성별(좌측), 연령별(우측)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참고〉 고용보조지표

- ◎ 2015년 5월 고용보조지표에 따르면, 실업률은 3.8%, 고용보조지표 1은 5.6%, 고용보조지표 2는 9.3%, 고용보조지표 3은 11.0%로 나타남
 - 2015년 5월 실업률과 고용보조지표 1~3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여성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시도가 활발했음을 보여줌
 - 연령별로 보면, 실업률이 가장 높은 15~24세와 25~29세의 고용보조지표 1, 2, 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5~24세의 경우 고용보조지표 3이 23.9%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 보면, 실업률은 초대졸이 5.0%로 가장 높았고 고용보조지표 1, 2, 3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14〉 인적특성별 고용보조지표

(단위: 천 명, %)

	실업률	실업자	고용보조지표 1	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	고용보조지표 2	잠재경제 활동인구	잠재취업 가능자	잠재구직자	고용보조지표 3	
전 체	3.8	1,022	5.6	491	9.3	1,659	29	1,630	11.0	
성별	남성	3.7	579	5.4	273	8.2	771	16	755	9.9
	여성	3.8	443	5.7	218	10.7	889	14	875	12.5
연령	15~24세	9.7	183	11.8	41	22.0	300	5	295	23.9
	25~29세	9.0	223	10.0	26	19.2	311	4	307	20.1
	30~39세	3.1	184	4.1	59	7.1	253	4	249	8.1
	40~49세	2.7	185	4.3	113	6.2	255	7	249	7.8
	50~59세	2.6	160	4.9	144	6.4	250	8	242	8.6
	60세 이상	2.2	88	5.0	108	9.0	290	2	288	11.5
학력	고졸 미만	2.4	112	5.4	139	7.5	254	5	250	10.3
	고졸	4.0	425	5.8	199	10.1	730	12	718	11.9
	초대졸	5.0	179	6.1	37	10.1	200	1	199	11.1
	대졸 이상	3.7	306	5.1	116	8.9	475	11	463	10.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 1)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실제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추가 취업이 가능한 자
 2) 잠재취업가능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이 가능하지 않은 자
 3) 잠재구직자: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자
 4) 잠재경제활동인구=잠재취업가능자+잠재구직자
 5) 확장경제활동인구=경제활동인구+잠재경제활동인구
 6) 고용보조지표1=(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7) 고용보조지표2=(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8) 고용보조지표3=(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실업자+잠재경제활동인구)/확장경제활동인구×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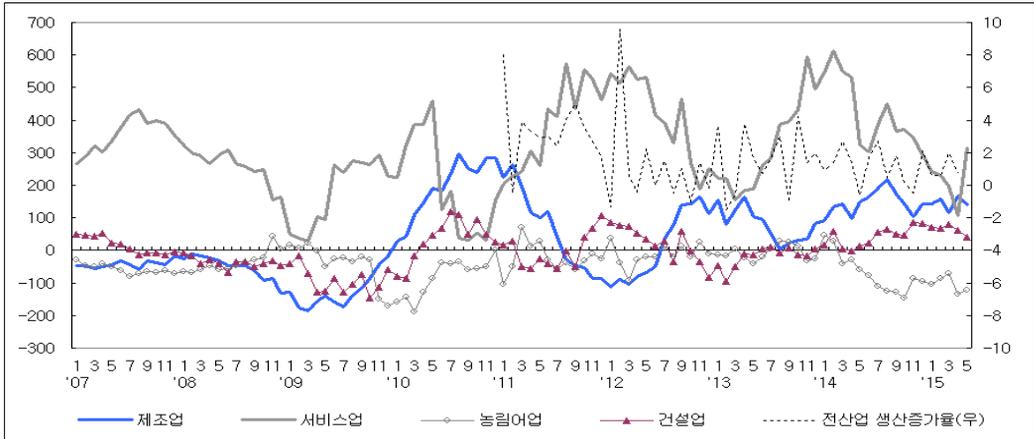
5. 사업체 특성에 따른 취업자 변화

◎ 2015년 5월 고용 증가폭 둔화세 주춤

- 2011년 이후 제조업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고용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임.
2015년 5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140천 명 증가(1~5월 평균 145천 명 ↑)
- 제조업과 더불어 건설업의 고용도 증가세 지속(42천 명 ↑)
- 이러한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비스업과 농림어업의 고용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고용 증가폭은 소폭 둔화
- 2015년 5월 서비스업 취업자는 2014년 고용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고용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어 왔던 음식·숙박업의 고용약진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금융보험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감소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부문의 고용 감소로 고용 증가폭을 확대하는 데는 역부족
- 이와 더불어 10만 명 이상의 견조한 고용 증가세를 보였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 증가폭이 3개월 연속 8만 명대 수준에 그침(80천 명 ↑)
- 또한 2015년 5월 농림어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23천 명 감소하는 등 1~5월 평균 104천 명 감소하면서 고용 증가폭 둔화세를 주도

[그림 20]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5〉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5	2014. 5	2015			
			2월	3월	4월	5월
취업자 전체	265	413	376	338	216	379
농림어업	-41	-58	-87	-70	-135	-123
건설업	-13	14	68	79	63	42
제조업	105	148	159	116	167	140
서비스업	187	327	230	197	108	315
도소매업	-36	67	62	74	13	35
운수업	27	-1	-10	-14	5	1
음식·숙박업	21	107	81	60	56	143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	37	39	55	37	41
금융·보험업	29	-29	-68	-67	-70	-46
부동산·임대업	-23	19	12	17	29	35
전문과학 등	-15	-5	10	-7	-17	2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09	-25	36	58	50	67
공공행정 등	9	1	-71	-57	-70	-47
교육서비스업	-41	49	24	25	-17	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32	131	135	82	83	80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6	-17	30	44	69	60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서비스업	25	22	-26	-53	-28	-52
가구내 고용활동 등	6	-57	-39	-35	-34	-32
민간부문	257	412	448	395	286	426
공공부문	9	1	-71	-57	-70	-4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중소기업의 고용 증가폭 둔화세 주춤

- 2015년 5월 중소기업의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81천 명 증가
- 중소기업의 임시직이 60세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감소(53천 명↓). 2개월 연속 고용 감소
- 반면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일용직이 크게 증가(136천 명↑). 주로 50세 이상 중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의 일용직 신규채용 규모가 전년동월대비 128천 명↑
- 한편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폭은 둔화
-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규모는 6개월 연속 증가

〈표 16〉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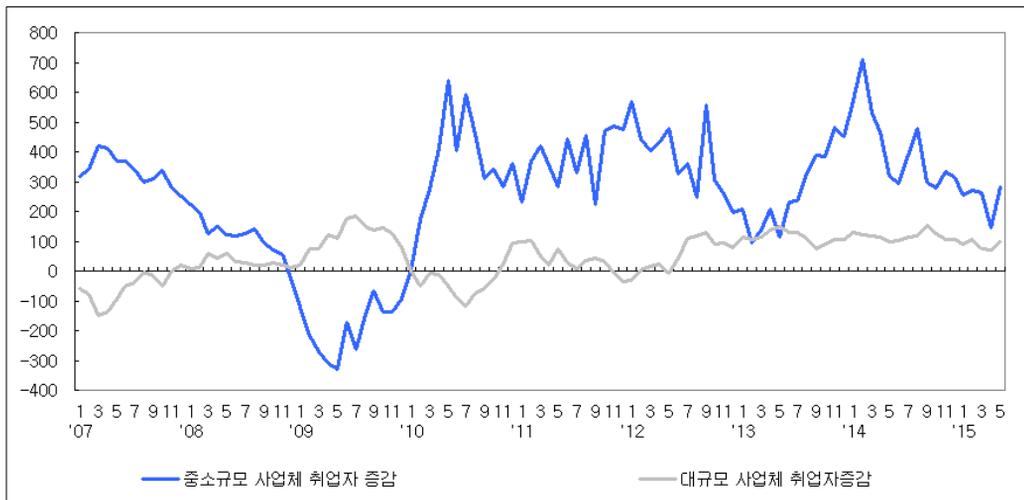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5	2014. 5	2015			
				2	3	4	5
중소규모 취업자 증감		116	316	272	263	145	281
신규채용		-14	-208	13	73	43	142
(일용직 신규채용)		66	-128	27	91	98	128
산업별	제조업	56	80	87	38	86	72
	서비스업	103	294	190	192	100	271
	도소매업	-31	45	63	85	11	28
	음식·숙박업	16	102	82	65	65	139
	금융보험업	31	-29	-57	-49	-54	-42
	공공행정 등	2	9	-21	-18	-43	-28
	교육서비스업	-57	30	-1	3	-45	-19
	보건업 등	108	125	97	54	59	55
	여가관련서비스업 등	-47	-15	31	47	70	61
지위별	건설업	-10	20	73	83	72	44
	상용직	520	320	301	280	259	281
	임시직	-194	136	28	14	-63	-53
	일용직	-23	-115	31	32	80	13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9	-48	-115	-107	-135	-76
임시직	도소매업	-29	0	-0	2	-41	-32
	금융보험업	-2	-4	-21	-23	-28	-29
	공공행정 등	-7	2	-17	-28	-29	-26
	교육서비스업	-84	41	-17	-22	-41	-43
	기타 개인서비스업	-20	51	22	-23	-54	-38
60세 이상		45	132	43	26	8	8
일용직	건설업	-3	-23	1	26	31	30
	음식·숙박업	14	-36	15	25	30	53
	사업시설서비스업 등	13	-4	19	27	31	31
	50세 이상	51	-43	50	41	54	83
연령별	20~24세	27	23	73	90	99	117
	상용직	32	74	12	15	46	32
	임시직	-24	-11	71	78	57	64
	일용직	12	-32	-8	-9	-10	15
	55~59세	123	176	128	113	78	8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	27	-8	-9	-19	-3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1] 사업체 규모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17〉 대규모 사업체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5	2014. 5	2015				
			2월	3월	4월	5월	
대규모 취업자 증감	150	97	104	76	71	97	
신규채용	-1	-26	7	24	34	24	
산업별	제조업	49	69	72	78	81	69
	서비스업	85	32	40	5	7	44
	운수업	14	-2	12	8	12	14
	보건업 등	24	6	37	27	24	26
지위별	상용직	142	122	82	51	41	70
	임시직	4	-15	34	28	32	26
연령별	25~29세	-19	36	34	16	14	-1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한편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97천 명 증가하면서 10만 명 내외에서 정체. 그러나 대규모 상용직 고용 증가폭은 둔화된 반면 임시직 고용은 증가

-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직 고용 증가폭 둔화는 주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과 교육서비스업 부문의 상용직 감소에 기인
 - ※ 2015년 5월 취업자를 연령별로 보면 55~59세 남성의 일자리 증가폭이 크게 둔화. 특히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고용이 감소

- ◎ 직종별로는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를 중심으로 고용이 크게 증가한 반면 관리자와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고용 감소세 지속

〈표 18〉 직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5	2014. 5	2015			
			2월	3월	4월	5월
취업자 전체	265	413	376	338	216	379
관리자	-87	7	-35	-39	-40	-45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01	151	110	60	22	108
사무종사자	125	133	42	74	31	55
서비스종사자	-3	118	83	37	16	86
판매종사자	25	44	25	-6	-20	-31
농림어업숙련종사자	-33	-61	-105	-72	-133	-127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54	-28	50	50	80	108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36	56	58	55	79	67
단순노무종사자	54	-6	149	180	181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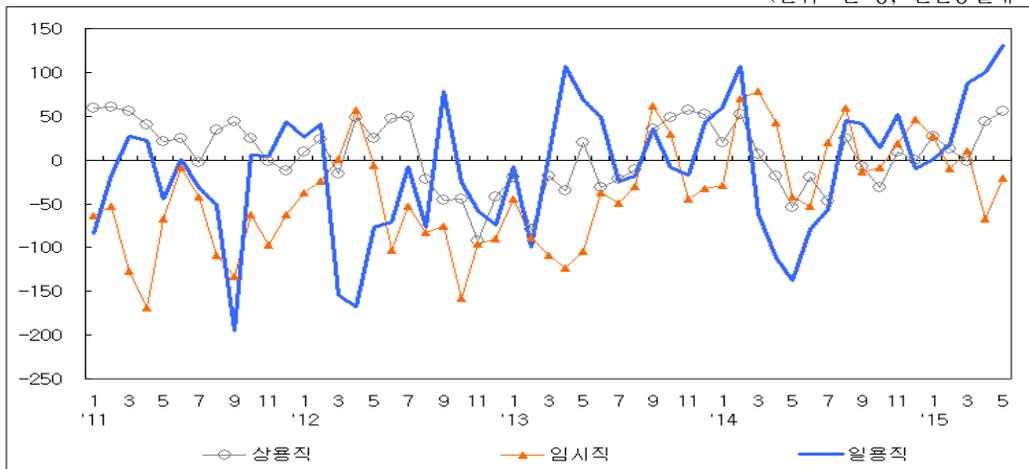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2015년 5월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 규모는 3,23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증가
 -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 규모는 최근 7개월 연속 증가
 - 2015년 5월 신규채용 규모는 전년동월대비 166천 명 증가. 상용직의 신규채용보다는 일용직 중심의 신규채용 활발
 - 최근 고용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20~24세 청년층의 신규채용이 활발해졌으나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에서 신규채용 활발

- 특히 5월 고용약진을 보인 음식·숙박업에서 신규채용이 활발했으나 대부분 임시·일용직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 종사상 지위별 신규채용 규모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19> 임금근로자의 신규채용 규모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5	2014. 5	2015				
			2월	3월	4월	5월	
임금근로자 취업자 증감	453	437	465	402	347	460	
임금근로자 신규채용 규모 증감	-15	-234	20	96	77	166	
지위별	상용직	20	-55	13	-2	44	56
	임시직	-105	-42	-10	11	-67	-21
	일용직	69	-138	17	88	100	131
연령별	20~24세	20	-70	-28	17	21	75
	40대	-10	-72	23	34	34	35
	55세 이상	5	11	26	58	50	97
산업별	제조업	24	-72	3	4	1	23
	서비스업	-61	-126	41	51	25	110
	도소매업	18	-63	3	16	-17	8
	음식·숙박업	5	-18	50	55	50	103
	공공행정 등	-19	-15	-19	-10	-17	11
규모별	보건의업 등	-22	45	-12	-17	-5	-1
	중소규모	-14	-208	13	73	43	142
	대규모	-1	-26	7	24	34	24

주: 신규채용은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로 간주.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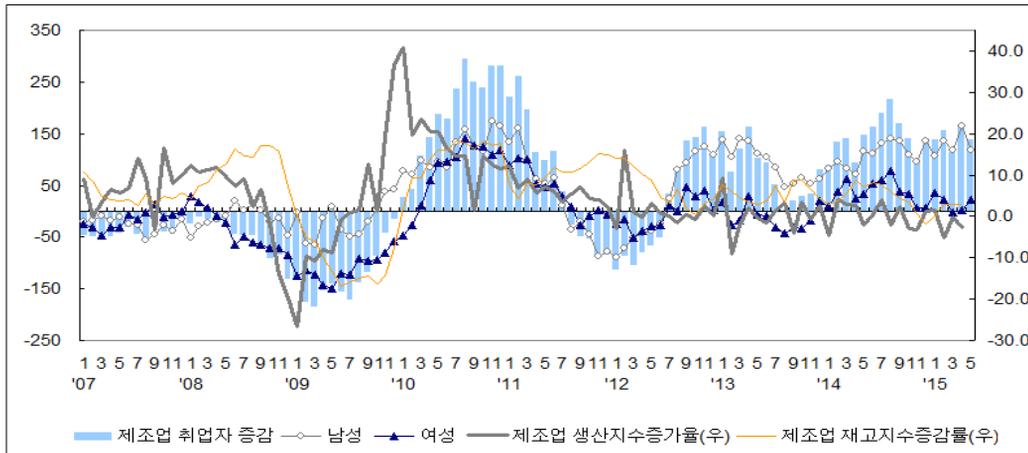
(1) 제조업 부문: 생산 감소, 고용 증가세 지속

- ◎ 제조업 부문의 생산증가율은 2015년 4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2.7% 감소(전월대비 1.3% 감소)했으며, 수출도 -3.1% 감소
 - 제조업 고용은 2015년 4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167천 명 증가(2015년 5월 현재 140천 명 ↑)
 - 2015년 5월 제조업 취업자 증가율은 3.2%로 서비스업(1.8%)에 비해 높으나 전년 동월대비 0.4%p 하락
 - 제조업 저성장 기조에서 제조업 고용 증가세를 견인하는 동력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현실에서 추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

- ◎ 제조업 고용은 2012년 7월부터 증가세 지속(2015년 1~5월 평균 145천 명 ↑)
 - 제조업 고용은 상용직 중심의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증가폭이 둔화. 주로 40~50대 연령층에서 상용직 둔화가 확인(177천 명 ↑(2014. 5) → 69천 명 ↑(2015. 5))
 - 반면 20대 청년층, 특히 20~24세 청년층에서 상용직 증가폭 확대
 - 상용직 주도의 고용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용직 고용이 5개월 연속 증가
 - 제조업 고용을 연령별로 보면, 20대 청년층 고용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는 반면 50대 연령층의 고용은 오히려 감소

[그림 23] 제조업 고용 증감 및 생산증가를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20〉 제조업 취업자 고용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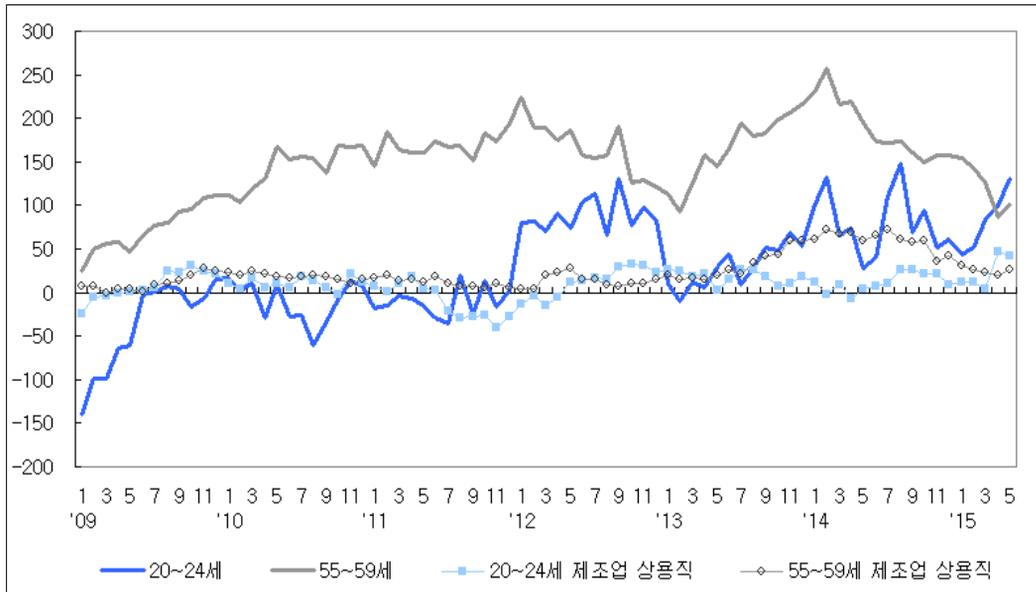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5	2014. 5	2015			
				2월	3월	4월	5월
제조업 취업자 전체		105	148	159	116	167	140
신규채용		24	-72	3	4	1	23
지위별	상용직	159	205	191	162	195	172
	20대	-16	-1	43	23	69	58
	(20~24세)	3	4	12	4	47	43
	40대	16	71	39	34	32	18
	50대	46	106	60	52	47	51
	임시직	7	-22	-32	-32	-32	-36
	일용직	-7	-23	8	1	13	17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5	-3	8	8	5	-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7	3	-11	-15	-12	-8
무급가족종사자		-12	-12	-5	-6	-2	-3
연령별	20대	4	-22	34	38	88	67
	(20~24세)	19	-8	11	19	59	50
	(25~29세)	-15	-14	24	19	29	17
	50대	24	117	25	12	2	-12
(55~59세)	9	91	13	8	-2	2	
규모별	중소규모	55	80	87	38	86	71
	대규모	49	69	72	78	81	6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4] 20~24세, 55~59세 연령층의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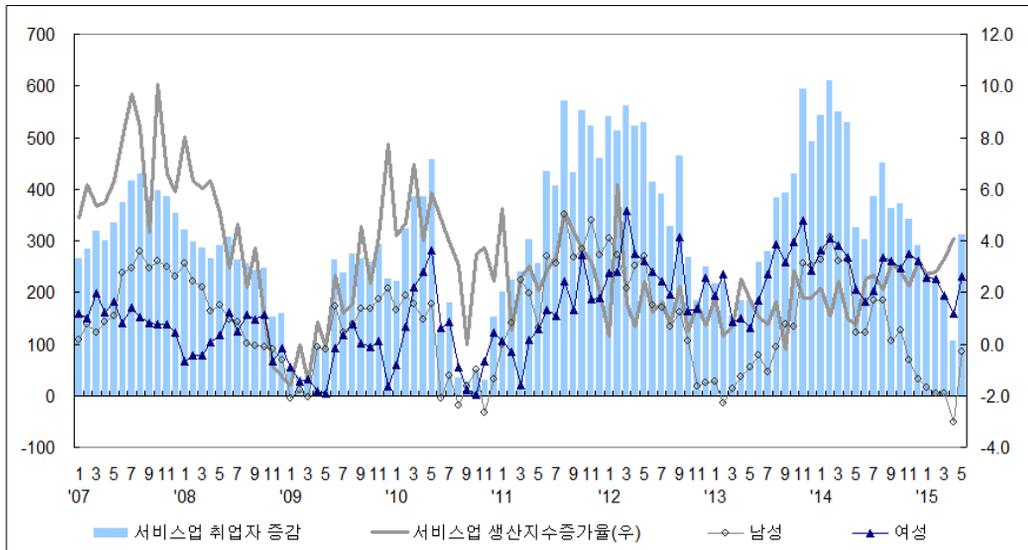
(2) 서비스업 부문: 생산 증가, 고용 증가폭 예년 수준 회복

-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은 2015년 4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4.1% 증가(전월대비 0.5% 증가)
 - 서비스업 생산증가율은 2014년부터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그동안 고용 증가세를 견인해왔던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율은 0.6%(2015년 5월)로 저조한 실적
 - 그러나 2015년 5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315천 명 증가하면서 예년 수준 회복. 특히 30~40만 명대 고용 증가폭을 기록했던 서비스업 상용직은 2014년 7월 218천 명으로 하락한 이후 2015년 4월 111천 명까지 둔화폭 확대. 그러나 2015년 5월 전년동월대비 202천 명 증가하면서 둔화세 주춤
 - 상용직의 고용 둔화세가 주춤하는 동안 서비스업 일용직과 자영업자 고용이 증가하면서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이 예년 수준 유지

- 반면 서비스업 임시직은 큰 폭으로 감소(14천 명↓)
- 서비스업 취업자를 연령별로 보면, 여전히 50세 이상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30세 미만 청년층 고용도 증가. 그러나 노동시장 핵심연령층인 30~40대 연령층에서는 고용이 감소

[그림 25]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21〉 서비스업 특징별 고용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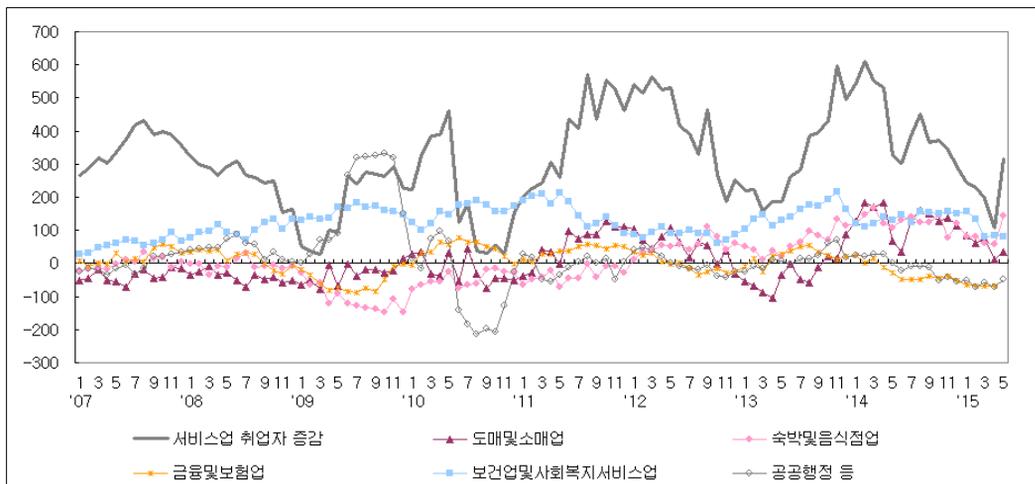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5	2014. 5	2015				
			2월	3월	4월	5월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187	327	231	197	108	315	
신규채용	-61	-126	41	51	25	110	
지위별	상용직	452	218	166	165	111	202
	임시직	-186	129	78	49	-36	-14
	일용직	1	-65	6	7	43	84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48	32	20	42	41	5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	-16	-37	-40	-32	9
	무급가족종사자	-28	28	-3	-26	-19	-25
성별	남성	55	121	5	3	-52	84
	여성	132	206	226	193	160	230
연령별	20대	-34	3	16	10	-3	38
	20~24세	16	32	50	65	54	86
	25~29세	-50	-29	-34	-56	-57	-48
	55세 이상	199	279	263	255	214	275
규모별	중소규모	102	295	190	192	100	271
	대규모	85	33	41	5	7	4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6] 서비스업 부문 주요 업종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 저조했던 음식·숙박업 부문 고용 증가폭 확대
 - 2014년 고용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로 2015년 1분기 음식·숙박업의 고용 증가폭이 크게 둔화하면서 서비스업 고용부진을 초래. 그러나 2015년 5월 전년동월대비 143천 명 증가하면서 서비스업 고용이 예년 수준을 회복하는 데 기여. 그러나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주도
 - 2015년 5월 음식·숙박업의 고용은 여성(103천 명 ↑), 50대(50천 명 ↑)가 주도
- ◎ 한편, 금융보험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고용 감소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부문에서 고용 감소 지속
- ◎ 여기에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문 고용이 3개월째 8만 명대 증가에 그침
 - 여성 취업자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상 여성의 일자리 증가가 둔화되었고, 중소기업 비중을 중심으로 둔화
- ◎ 몇몇 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음식·숙박업의 고용약진과 더불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67천 명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41천 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60천 명 ↑) 등에서 고용이 증가하면서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이 예년 수준 회복

〈표 22〉 음식·숙박업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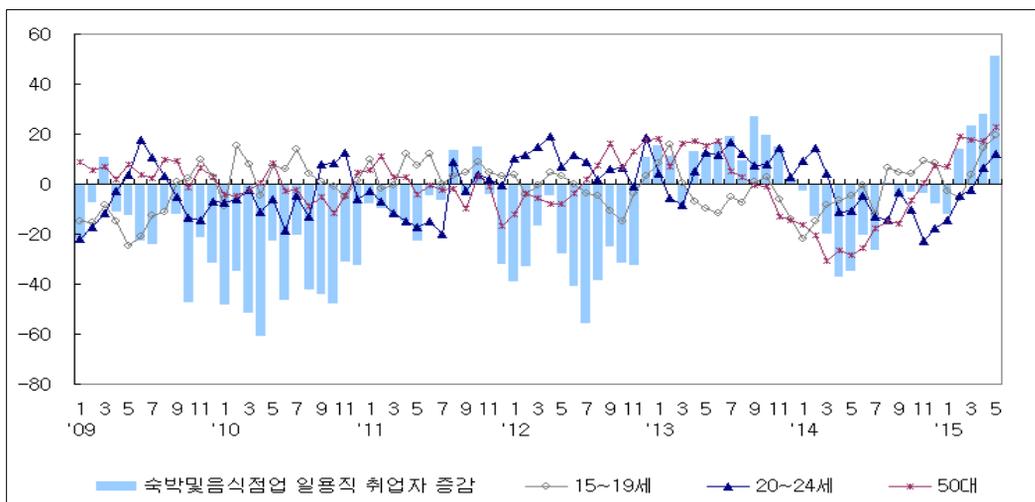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5	2014. 5	2015				
			2월	3월	4월	5월	
음식·숙박업 취업자 증감	21	107	81	60	56	143	
신규채용	5	-18	50	55	50	103	
(임시직)	-14	11	26	37	29	45	
(일용직)	13	-18	17	17	24	48	
지위별	상용직	37	17	44	21	12	23
	임시직	2	84	48	48	45	70
	일용직	13	-35	15	24	28	5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23	15	14	24	17	2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5	10	-33	-32	-23	-7
	무급가족종사자	-2	16	-7	-24	-23	-19
성별	남성	9	105	34	6	4	40
	여성	12	2	46	53	53	103
연령별	15~19세	-3	8	18	8	11	14
	20~24세	19	34	24	12	16	34
	50대	39	3	6	9	7	50
	60세 이상	4	28	30	49	39	4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7] 음식·숙박업 일용직의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23〉 금융보험업과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부문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5	2014. 5	2015			
				2월	3월	4월	5월
금융보험업 취업자 증감		29	-29	-68	-67	-70	-46
신규채용		0	-14	-9	-8	-3	-2
지위별	상용직	38	-34	-41	-31	-26	-6
	임시직	-6	-2	-25	-30	-33	-3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1	-71	-57	-70	-47
신규채용		-19	-15	-19	-10	-17	11
지위별	상용직	12	11	-50	-34	-42	-32
	임시직	-3	-8	-17	-23	-21	-1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표 2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특징별 고용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5	2014. 5	2015			
				2월	3월	4월	5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132	131	135	82	83	80
신규채용		-22	45	-12	-17	-5	-1
지위별	상용직	122	83	106	77	74	67
	임시직	-10	43	24	9	11	14
성별	여성	120	82	109	61	55	57
규모별	중소규모	108	125	98	54	59	54
	대규모	24	6	37	27	24	26
중분류별	보건업	55	22	86	70	80	69
	사회복지서비스업	77	110	49	12	2	1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3) 농림어업 부문: 고용 감소세 지속

- ◎ 농림어업 취업자는 2015년 5월 현재 1,53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3천 명 감소
- 농번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 취업자는 예년 수준보다 고용 감소폭이 확대(취업자 비중이 5.9%로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 농림어업 특성상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중심으로 감소
- 2015년 5월 현재 55세 이상 연령층의 고용 감소폭이 크게 둔화(92천 명↓)
 - ※ 2014년 농림어업조사(12월 1일 기준) 결과 농가, 어가 각각 2만 1천 가구, 1천 5백 가구 감소. 농어가 인구는 전년대비 101천 명 감소
 - ※ 농림어업 취업자가 2014년 2월 이후 급격하게 감소한 이유 중에는 2008년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로 바뀌는 제도변경으로 인해 많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되면서 농림어업 65세 이상 취업자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임
 - ※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수급대상자는 시기별로 변화:
 - 2008년 1~6월: 70세 이상 노인의 60%
 - 2008년 7~12월: 65세 이상 노인의 60%
 - 2009년 1월~2014년 6월: 65세 이상 노인의 70%
 - 2014년 7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 도입

〈표 25〉 농림어업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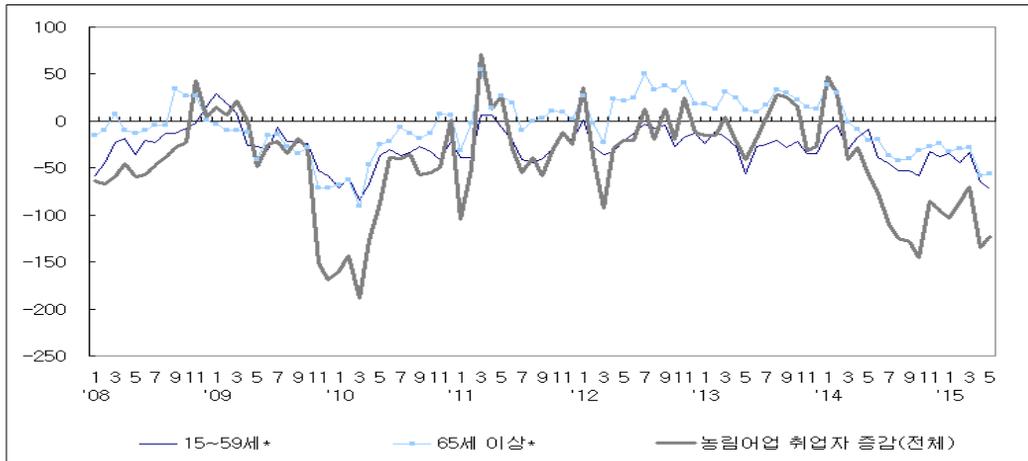
(단위: 천 명, %,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5	2014. 5	2015				
			2월	3월	4월	5월	
농림어업 취업자 수	1,714	1,656	1,036	1,257	1,428	1,534	
(취업자 비중)	6.7	6.4	4.1	4.9	5.5	5.9	
취업자 증감	전체	-41	-58	-87	-70	-135	-123
	임시일용직	-12	-15	4	-10	-6	6
	비임금근로자	-33	-50	-88	-55	-122	-125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7	-7	11	16	12	1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5	-32	-70	-55	-78	-76
	무급가족종사자	-25	-11	-29	-16	-56	-60
	15~59세	-61	-13	-38	-34	-63	-61
	60~64세	6	-20	-22	-7	-6	-3
65세 이상	14	-25	-27	-29	-66	-5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28] 농림어업 취업자의 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주: *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함.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7월부터 지급.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 건설업 고용 증가세 지속

- 2014년 4월 이후 고용 증가세 유지, 2015년 5월 전년동월대비 42천 명 증가
- 상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고용은 감소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을 중심으로 고용 증가

<표 26> 건설업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5	2014. 5	2015				
			2월	3월	4월	5월	
건설업 취업자 증감	-13	14	68	79	63	42	
신규채용	34	-19	-33	46	56	15	
지위별	상용직	22	28	20	-5	-11	-28
	임시직	-9	19	21	29	33	24
	일용직	-3	-26	1	28	32	3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3	-5	17	21	20	12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	-4	3	3	-14	-2
연령별	50대	13	5	55	72	58	59
	60세 이상	13	38	26	23	13	-4
규모별	10인 미만	-14	-26	44	53	61	54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6. 지역별 고용 상황

◎ 고용률 등 취업활동은 지역별 편차가 있음

- 광역시도의 2015년 5월 고용률은 제주도(67.9%), 충청남도(64.4%), 경상북도(63.6%) 순으로 높고, 부산(56.1%), 광주(58.4%), 울산(59.1%) 순으로 낮게 나타남
- 거주지 기준 취업자 수는 경기도(6,389천 명), 서울(5,167천 명), 경상남도(1,681천 명) 순으로 많고, 제주도(331천 명), 울산(564천 명), 광주(740천 명) 순으로 적게 나타남
- 광역시도의 2015년 5월 실업률은 인천(5.6%), 부산(4.9%), 서울(4.4%) 순으로 높고, 전라북도(1.8%), 제주도(2.2%) 그리고 경상남도(2.5%) 순으로 낮게 나타남
- ※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고용률이 높게 상승한 곳은 대구(1.4%), 대전(1.3%), 제주도(1.3%) 순으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곳은 광주(-1.3%), 부산(-0.7%), 전라남도(-0.7%) 순으로 나타남

〈표 27〉 지역별 고용지표(2015년 5월 기준)

	고용률(%)		취업자 수(천 명)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전 체	60.9	0.1	26,189	378	63.3	0.3	3.8	0.2
서울특별시	60.3	0.0	5,167	33	63.1	-0.2	4.4	-0.4
부산광역시	56.1	-0.7	1,660	-20	58.9	-0.1	4.9	1.2
대구광역시	59.8	1.4	1,247	33	62.0	1.6	3.6	0.2
인천광역시	61.5	-0.5	1,499	11	65.1	0.0	5.6	0.8
광주광역시	58.4	-1.3	740	-9	60.3	-1.0	3.2	0.6
대전광역시	60.6	1.3	784	22	62.7	1.5	3.4	0.2
울산광역시	59.1	1.1	564	17	61.0	1.5	3.2	0.6
경기도	61.8	0.3	6,389	153	64.3	0.6	3.9	0.3
강원도	59.3	0.8	754	18	61.2	1.2	3.0	0.6
충청북도	63.2	-0.5	841	7	65.3	-0.5	3.2	0.0
충청남도	64.4	0.7	1,228	49	67.2	1.1	4.2	0.7
전라북도	60.3	0.8	921	20	61.4	0.6	1.8	-0.4
전라남도	62.3	-0.7	936	-1	63.9	-0.8	2.6	-0.1
경상북도	63.6	-0.6	1,448	-2	65.3	-0.7	2.7	0.0
경상남도	60.7	0.2	1,681	31	62.3	0.5	2.5	0.4
제주도	67.9	1.3	331	15	69.4	0.9	2.2	-0.6

자료 : 통계청 KOSIS(경제활동인구조사).

◎ 주요 지역 고용동향

○ 대구광역시

- 2015년 5월 대구광역시 고용률은 59.8%로 전년동월대비 1.4%p 상승
-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7천 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13천 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0천 명)에서 증가하고, 농림어업(-17천 명), 건설업(-7천 명), 제조업(-3천 명)에서 감소하였음
- 직업별로 보면, 사무종사자(41천 명), 전문·기술·행정관리직(14천 명), 서비스·판매종사자(4천 명)에서 증가하고, 농림어업숙련종사자(-13천 명),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종사자(-13천 명)는 감소하였음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92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천 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54천 명, 일용근로자는 4천 명이 각각 증가하고, 임시근로자는 23천 명 감소하였음

○ 대전광역시

- 2015년 5월 대전광역시 고용률은 60.6%로 전년동월대비 1.3%p 상승
-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1천 명)에서 증가하고, 농림어업(-1천 명), 제조업(-4천 명), 건설업(-2천 명)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천 명)에서 감소하였음
- 직업별로 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직(11천 명), 사무종사자(12천 명), 기능·기계조작 및 단순종사자(2천 명)에서 증가하였고, 서비스·판매종사자(-3천 명)에서 감소하였음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60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천 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는 22천 명, 임시근로자는 5천 명 증가하고, 일용근로자는 12천 명 감소하였음

〈표 28〉 주요 지역 취업자 수 및 변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2015년 5월 기준)

(단위: 천 명, %)

		2014. 5	2015. 4	2015. 5	전년동월대비	
					증감 수	증감률
대구광역시	전체	1,214	1,226	1,247	33	2.7
	산업별					
	농림어업	37	18	20	-17	-45.9
	광공업	247	241	245	-3	-1.1
	제조업	247	240	244	-3	-1.3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930	968	983	53	5.7
	건설업	91	85	83	-7	-8.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306	320	317	10	3.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418	440	455	37	8.9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15	123	128	13	10.8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직	255	273	269	14	5.5
	사무직	171	201	212	41	24.2
	서비스·판매직	290	290	294	4	1.3
	농림어업직	32	17	19	-13	-40.0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468	446	454	-13	-2.9
	종사상지위별					
	비임금근로자	321	316	320	-1	-0.3
	자영업주	264	266	264	0	0.1
	무급가족종사자	57	50	56	-1	-2.4
임금근로자	893	910	927	34	3.8	
상용	533	578	587	54	10.1	
임시	280	255	257	-23	-8.4	
일용	80	77	84	4	4.6	
대전광역시	전체	762	775	784	23	3.0
	산업별					
	농림어업	11	10	11	-1	-7.0
	광공업	81	78	78	-4	-4.7
	제조업	81	78	78	-4	-4.7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669	688	696	27	4.1
	건설업	64	65	62	-2	-2.5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76	173	174	-2	-1.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345	369	376	31	9.0
	전기·운수·통신·금융업	84	82	84	0	-0.4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직	193	197	204	11	5.5
	사무직	125	138	137	12	9.7
	서비스·판매직	184	182	181	-3	-1.5
	농림어업직	11	10	11	0	-0.9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249	249	251	2	1.0
	종사상지위별					
	비임금근로자	177	182	185	8	4.2
	자영업주	153	156	158	5	3.3
	무급가족종사자	25	27	27	2	9.8
임금근로자	585	593	600	15	2.6	
상용	378	394	400	22	5.8	
임시	143	148	148	5	3.6	
일용	64	51	52	-12	-18.8	

주: 증감률은 취업자 증가율임.

자료: 충청지방통계청(2015. 6), 『2015년 5월 대전·충청지역 고용동향』.

동북지방통계청(2015. 6), 『2015년 5월 대구·경북지역 고용동향』.

○ 광주광역시

- 2015년 5월 광주광역시 고용률은 58.4%로 전년동월대비 1.3%p 하락
-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5천 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6천 명)에서 증가하였고, 농림어업(-5천 명)과 건설업(-9천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천 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5천 명)에서 감소하였음
- 직업별로 보면, 서비스·판매종사자(2천 명)와 기능·기계조작 및 단순종사자(8천 명)에서 증가하였고, 사무종사자(-14천 명)와 농림어업숙련종사자(-5천 명)에서 감소하였음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54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 명 감소하였으며, 이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가 각각 1천 명씩 증가하였으나 일용근로자는 10천 명 감소하였음

○ 부산광역시

- 2015년 5월 부산광역시 고용률은 56.1%로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
-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11천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천 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3천 명)에서 증가하였고, 농림어업(-9천 명), 건설업(-5천 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24천 명)에서 감소하였음
- 직업별로 보면, 기능·기계조작 및 단순종사자(40천 명)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전문·기술·행정관리직(-17천 명), 사무종사자(-12천 명), 서비스·판매종사자(-22천 명)와 농림어업직(-9천 명)에서 감소하였음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1,26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2천 명 증가하였으며, 이 중 전년동월대비 상용근로자(21천 명)와 일용근로자(5천 명)는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14천 명)는 감소하였음

〈표 29〉 주요 지역 취업자 수 및 변화: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2015년 5월 기준)

(단위: 천 명, %)

		2014. 5	2015. 4	2015. 5	전년동월대비		
					증감 수	증감률	
광주 광역시	전 체	749	731	740	-9	-1.2	
	산업별	농림어업	27	19	22	-5	-19.7
		광공업	107	109	112	5	4.8
		제조업	107	108	112	5	4.4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614	604	606	-9	-1.4
		건설업	74	63	65	-9	-12.4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71	178	177	6	3.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87	285	286	-1	-0.3
		전기·운수·통신·금융업	83	78	78	-5	-5.9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직	162	163	162	0	0.2
		사무직	136	124	122	-14	-10.1
		서비스·판매직	186	188	187	2	0.8
		농림어업직	24	16	19	-5	-19.3
	종사상 지위별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241	240	249	8	3.2
		비임금근로자	195	191	194	-1	-0.7
		자영업주	161	159	163	1	0.9
		무급가족종사자	34	32	31	-3	-8.0
		임금근로자	554	540	546	-8	-1.4
		상용	367	363	369	1	0.4
임시		139	141	140	1	1.0	
일용	47	36	37	-10	-21.7		
부산 광역시	전 체	1,680	1,656	1,660	-20	-1.2	
	산업별	농림어업	14	4	5	-9	-61.7
		광공업	283	293	294	11	4.0
		제조업	283	293	294	11	4.0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1,383	1,359	1,361	-22	-1.6
		건설업	129	123	124	-5	-4.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434	412	410	-24	-5.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579	583	582	4	0.6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42	241	245	3	1.2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직	349	328	333	-17	-4.8
		사무직	286	272	274	-12	-4.2
		서비스·판매직	428	411	406	-22	-5.1
		농림어업직	11	2	2	-9	-81.5
	종사상 지위별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607	642	647	40	6.5
		비임금근로자	431	414	399	-32	-7.4
		자영업주	367	351	342	-25	-6.9
		무급가족종사자	63	63	57	-7	-10.3
		임금근로자	1,250	1,242	1,262	12	1.0
		상용	737	764	758	21	2.8
임시		400	369	386	-14	-3.4	
일용	113	109	118	5	4.5		

주: 증감률은 취업자 증가율임.

자료: 호남지방통계청(2015. 6), 『2015년 5월 광주·전남지역 고용동향』.

동남지방통계청(2015. 6), 『2015년 5월 부산·울산·경남지역 고용동향』.